



유엔글로벌콤팩트 아시아지역회의 결과 및
기후변화 게임변화 심포지움

2009. 1.20-22

주철기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 I. 회 의 명: Workshop for GC Focal Points in Asia
The Climate Game Change-innovation and solution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 II. 기 간: 2009.1.20-22 방콕 에스캡 회의장
- III. 참 석 자: -에스캡 관계자, 아-태지역 각국 Focal Points (별첨1)
-한국 주철기 사무총장
-아-태지역 환경관계자들
- IV. 내 용: 프로그램 (별첨2)
- I. ESCAP/UNGC 아-태지역 회의
- △ 토의 의제
- 네트워크의 성공의 길 :변화의 이론과 전략설정
Roadmap to Success: Creating theory of Change
-경영학 변화의 이론을 도입, 네트워크의 발전 전략을
제시(에스캡측)
-웹을 활용한 tool kits 작성을 추진
14D Strategic Planning Toolkit



-전략작성의 기본에 대한 학습 및 교환

Feedback session

- 각국 협회의 향후 5년내 비전 발표
 - UNGCO 본부 현황, 전략발표 (COP 제출 현황 포함)
 - 인도의 전략발전 사례 발표(Uddeshi Kohli)
- 아시아 공동 웹사이트개발 협의
 - 14D Website
- 기후변화의 비즈니스 케이스
 - UNEP전문가 발표 (Cornis Lugt)
 - CarbonNeutral사 발표 (Rani Virdee)

△ 중요논점 및 학습사항

가. 전략 발전

-각 네트워크가 자체적 발전전략을 수립

(단, 중장기 포함)

-기본 컨셉트(별첨3)및 관련 웹사이트

www.theoryofchange.org

www.globalcompactasiapacific.org

-GC 이행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요건 도출;

- ① CEO의 강력 추진의지 strong leadership
commitment of CEOs
- ② 효과적 시스템및 자원 effective systems and
resources
- ③ 효율성있는 대외 파트너 effective external
partners

-GC 이행의 인센티브 여건

- ① 정부의 이해및 지지 proactive and supportive
government
- ② 기업의 GC 원칙이행과 사업기회관계에 대한



이해 companies' understanding the link
between GC principles and business
advantages

- ③ 이해당사자의 참여 multi-stakeholder
engagement

나. 인도의 전략발전 사례 (별첨 4)

-운영위 및 Board의 수개월 이상 충분한 토의를 가진 후
협회의 전략서를 채택 Global Compact Society, India,
Strategic Plan

-중장기 목적(2015년, MDG 목표의 해) 설정;

- ① 인도의 책임 기업운동 강화 Responsible Business
Movement
- ② 2015까지 1000개 선도 대기업참여추진
- ③ 2015까지 2000개 중소기업참여 (공급체인 포함)
- ④ 톱 100개 경영대학의 UNGC 참여추진
- ⑤ 전국을 3대 권역으로 구분, 참여확대 추진

-추진방책

- Awareness, events, champions, recognitions, GC
working groups, T/Fs, knowledge development,
training, expert assistance, local level support,
resource materials, centers in academic institutions,
multi-stakeholders, international networking,
governance structure
(별첨자료 참조)

다. 기타 각국 사례

- ① 월 1회 회원사 순례 회의 개최: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회원사 사무실, 사장인사, 회사정책 발표, 기타
회원사 1개 발표 (최근 COP 발간사 등)

-시간:16:30-18:00

-주로 다과 제공 (또는 식사제공 사례)

-20-30여명 참석

-GC 상황, 추진 전략협의 계기로 활용

② 공동행동 개발 (인도네시아 사례)

-정책구호서 나아가, 실질행동; child care, inclusive market, tree planting etc

-월 정례 회의시 토의, 주간 회사/단체 설정, 5-6개사 참여, 비회원도 동참가능

-아동교육-원격교육(World Vision, IT사, British Council등)

-유엔기구를 현지 적절활용

③ Survey 활용

-에스캡, 매 사업마다 평가서 접수

-방글라데시:CSR 인식도 100대 기업조사 예정

④ 언론과 제휴하여 국제회의 개최 (싱가포르 사례)

-영자경제권위지: 신문판매

-협회: 회의개최 수익제고

△ 공동 조치 예정 사항

⑤ 에스캡 주관 웹사이트 추가개발

-3-4주내 각 협회 의견추가제시 (회원사 반응 종합 후 협회 입장 개진)

-웹 사이트 기개발국은 관련 Homepage를 link 시켜 활용토록 추진

⑥ 아-태 Award 제정방안 추진: CSR관련 과다



시상의 폐해문제 지적

-아시아 차원 공동 제정 방안 제기

⑦ 전략 개발 지침 개발문제 연구

-에스캡 전문가 순회지원용의

⑧ 아태역내 전문가 데이터 베이스 구축 추진

⑨ 에스캡, 역내 네트워크 간 협력을 통한 시스템 발전 본격추구; 방글라데시 협회 창설 지원, 마카오 창설지원, 스리랑카 지원등

△ 관찰사항

⑩ 호주 등 GRI 강세, GC 후발지역 참여 시동

⑪ 태국 참여 미약, UN PRI 지역 Chapter 추진동향

⑫ 중국, 일본 참여결여

⑬ 환경관계 정보 웹;

www.climateneutral.unep.org

www.climateactionprograme.org

[www.unep.fr/scp/publications/details.asp?id=D
TI/0601/pa](http://www.unep.fr/scp/publications/details.asp?id=D
TI/0601/pa)

www.unglobalcompact.org/c4c

△ 우리협회 조치 검토사항

-월 1회 회원사 순방 회의 개최 방안 검토

-회원사의 사회공헌분야 공동 과제 검토

-MNE의 지사를 신규회원사로 영입, 관리

-한국협회의 2015년까지 발전전략 수립

II. 기후변화 게임 변화-기후변화 적응의 혁신및 해결 심포지움

The Climate Game Change-innovation and solution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토의의제



- 기후변화-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혁신 및 해결
The Climate Change-Innovations and solution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 에스캡, 스웨덴 공동 주최
 - Noeleen Heyzer 에스캡 사무총장, Anders Nordstrom SIDA 사무총장, Angela Cropper UNEP 부총장등
 - 신시장 개척자 Pioneers of the New Market
 - 기후행동의 사업기회 Business Opportunities for Climate Action
 - 기업 적응 연구결과 발표:World Resources Institute
 - 분과토의
 - ① 미래도시 Creating cities for the future
 - ② 식량안보 Ensuring food security
 - ③ 기후변화 재앙 위험관리 Managing risks from climate change and disaster
 - 종합 Way forward

△상세내용

- Anders Nordstrom SIDA사무총장 (스웨덴 개발 협력 기구)
 - 스웨덴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노력-국제위원회 설치
 - 세계투자의 85%점유 민간기업 참여가 귀중
 - 기후변화의 경감(mitigation)은 물론 적응(adaptation)에 기업의 참여를 기대
 - 물 문제, 식량안보 등 정부·시민사회·기업 간 파트너쉽 기대
- Lars-Erick 총리 환경고문
 - 금년 겨울 코펜하겐회의서 Post-Kyoto Protocol 체제 합의 도출: 2012 이후 2도 이하로 경감, 2050 까지 50%



경감

- 금융지원체제 개선, 적응(adaptation)면 기술 이전, 산림 파괴 방지, 시장 메카니즘(Carbon Market)을 세우기를 기대, 개도국 개발 권리를 인정
- 새로운 금융재원발굴,기후변화대응에 있어 지속개발, 삶의 질 확보의 필요성강조

● Noeleen Heyzer 에스캡 사무총장

- 매년 아태지역 비지네스 포럼 개최-금년은 기후변화대응이 주제
- 경감(mitigation)과 적응(adaptation)이 다같이 중요
- 저탄소 성장은 도전과 기회를 같이 가져다 줌
- 도서국가, 빈곤층의 주타격 등 아시아 국가의 피해가 큼
- 기업이 준비가 돼있어야 하며, 서비스와 기술개발 등으로 녹색성장을 할 수 있어야 함
- 에스캡은 환경세 부과, green job 창출 등을 권고해 왔음
- 한국은 수백만불을 에스캡에 제공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고 있음
- 정부는 분명한 틀과 메카니즘을 기업에 제공해 주어야 함
- 기업은 방대한 기회를 포착해야 하며, 기술개발의 개척자들은 기술이전을 할 수 있어야 할것임
- 녹색성장,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함
- 기업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모색하며, 사회책임적인 태도가 필요함
-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삶의 질을 확보해 나가는것이 필요함



- Angela Cropper UNEP사무차장
 - UNEP은 2008. 환경의 날 발표와 같이 carbon habit의 변화 등 게임의 변화를 주창하고 있음
 - 작년 미얀마 피해와 같은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기후대응으로 기회의 창출 계기가 마련되고 있음
 - UNEP은 Global Green New Deal 을 주장함
 - 그린 기술투자, 자연보전을 하며 신고용을 창출할 수 있음
 - Green New Deal 로 시장에 신호를 보내야 함:
 - ① Clean energy, clean technology
 - ② 농촌고용창출, Bio mass 활용
 - ③ 친환경 농업
 - ④ 환경체제 적응
 - ⑤ 탄소 배출 경감, 녹색빌딩 건설 등
 - 에스캅은 2005년 이래 녹색성장을 추진
 - 코스타리카의 추진 사례
 - 한국 정부 녹색성장을 표방하고 대규모 신투자 예정, 일본 및 미국정부의 대규모 투자 예정을 평가
 - UNEP은 2008년 녹색고용창출 보고서 채택
 - 2006년 대비, 세계는 60%를 친환경 사업에 투자
 - 유럽에서 이미 친환경 분야에 2-300만 신규고용 창출 사례, 이 부문은 4-5배의 고용을 창출
 - 개도국도 청년, 여성, 빈곤층 등 녹색고용 창출 (방글라데시 여성기업인, 태양광열장치 보급 성공사례, 브라질 알류미늄 수집 재활용 사례, 중국의 Suntech사 photo voltaic 보급사업 성공 사례)
 - 30-40%는 큰 투자없이 사업가능
 - 2008년 UNEP의 그린 건물/ 건설 권장보고서 발표
 - 이런 사례등으로,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주어야 함



- Global Climate Change Initiatives를 취해야 함
- 최근 한국 창원에서 주최한 Regional Climate Change Platform 같은 국제 네트워크 활동을 높이 평가함
- 스웨덴은 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고 있음
- 저탄소 지속가능성장은 가능한것임
- 코펜하겐에서의 업적을 위해 창의성, 엄청난 노력이 필요함:자연보전, 지식관리, 지속가능 녹색투자, 협력적 활동이 필요함

● 파넬 1. 신시장의 개척자 (Pioneer of the New Market)

- Veronica Pedrosa 알자지라 앵커 사회
- 정래권 한국 환경대사: 12월 코펜하겐 협상에서는 차기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시장의 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시장 메카니즘을 도입해 주어야함
- James Gifford PRI 사무총장: PRI에는 450개사가 서명 참여하여, 총 180조의 자산가동력을 망라하고 있음. 친환경투자를 위해 PRI는 “Shareholder investment clearing house” 제도를 도입, 운용중임. 그간 주로 mitigation 을 중심으로 대응해 왔으나, 적응(adaptation)은 PRI 로서는 새로운 개념이 되고 있음. 공공-민간간 대화의 증진이 더 필요함
- Teresa Au HSBC 관계자: 최근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고객사의 상당부분(43%)이 기후변화문제를 금년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지적하고 있었음. 기후변화 대응은 큰 사업잠재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기관들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음
- Peralta 아태 개발금융기관협회 사무총장: 기후변화문제를 다루는 일종의 중앙은행 설립이 국제적으로 필요함. 기후변화대응 체제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가 중요함.
- HSBC AU 지속가능담당자: 기후변화대응투자의 시장내 이윤



성(profitability)을 높여야 함.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 투자지지를 지켜 보아야함. 지구환경보전, 지구시민 보호, 이윤창출의 3대 관점(triple bottom line)에서 기후변화문제를 접근해야 함.

-사모아 환경장관: 지난 11월 폴란드 개최 기후변화 회의결과에 크게 실망하고 있음. 기후변화문제 대응면, 돈문제가 사람에게 앞서서는 안될 것임.

-패널: 돈을 절감하며 그린정책을 위할 부문은 관광 등 많은 분야가 있음. 아시아 지역에서 낮은 수준의 기술이 소요되는 부문에서도 친환경 산업이 가능함.

-HSBC AU: HSBC는 가장 먼저 Carbon Print 를 도입, 대응한 결과 종이 사용부문에 400만불의 절약 성과를 기할 수 있었음.

-정래권 대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기후변화 Clearing house 등 모멘텀을 부여하며, 경감과 적응조치를 병행하면 그 전망은 밝다고 봄

● 파넬 2: 기후 행동을 위한 사업 기회 (Business Opportunities for Climate Action)

-Rohan Parikh 그린 이니셔티브 책임자: 오바마 미대통령의 기후변화대응 투자로 사업계기 창출가능성을 주목함.

에너지 효율성을 추진하는것은 IT 와 접목할때 큰성과를 가져올 수 있음.기후변화대응은 반드시 많은 비용만을 요구하는것은 아니며 수년의 단기간내에 실적을 견울수 있다고 지적함.

-Wilford CSR Asia 사장:IT 를 접목한 smart building이 생기고 있으나,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만 하는것도 문제가 있음.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활동하는 작은 규모의 기업들도 필리핀, 라오스 등지의 농업 부문 사례가 있고 인도, 인도네시아 등지의 소규모 투자사업들도 있음. 지역차원의 기존의 능력있는 요소들



을 키워나가야 함. 대기업들은 연관기업들과 협력하며, 빈곤퇴치, 발전지향적 사업들을 할 수 있을것임.

-Michael Bjarhov 에릭손사 대표: ICT 20/20 언급. 에너지소비 절감을 통하여 이익은 낼 수 있음. 미래를 향한 스펙트럼이 중요함. 과거 GSM 개발과 같이, 정부가 하지 않는 것에 도전하는 것도 좋다고 봄 .

-Ravi Fernando 스리랑카 MAS사 대표: 우수기업에 대한 reward체제가 있으면 좋겠음. 자사는 여러나라에 42000명의 고용을 하고 있으며, 영향력권 내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지속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을 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Green apparel plant를 도입하기도 했음. 아직까지 이윤을 내지는 못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회책임적 변화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봄. MBA 과정 등에서 사회책임교육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Wilford CSR ASIA: 금번 계기는 지역차원 최초의 공공-기업간 대화의 계기인 바, 개발협력기관 등을 포함시켜 이런 대화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고 봄. 새로운 평가 (rating)제도의 도입도 필요할 것임

-Michael 에릭슨 대표: 농촌지역으로 까지 인지도를 확산시켜 나가야할 필요성을 언급

-주철기 사무총장: 세계 경제의 구조재편기에 있는바, 위성, 휴대폰 등 IT 수단의 보급과 아울러 Green Technology의 개발 등을 통해 현재까지 소비층에 포함되지 않은 40억 인구의 변화를 초래하며 이들을 빈곤에서 탈피시킬 기술에서나 금융 지원 정책면의 방안은 없을것인지에 대한 패널의 의견제시를 요청

-Parikh 그린 이니셔티브 대표: 농촌지역으로 까지의 교육의 확대가 필요함.

-Machael Ericsson대표: 통신수단을 원격지역에 더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모바일 브로캐스팅 등 정부차원에서 라이선스의 허용 등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 World Resources Institute 의 민간기업의 적응 연구결과 발표(Private sector Adaptation study)
관련기관 웹사이트 참조

- 분과별 토의

- 1) 미래 도시건설 (Creating cities for the future)

-에너지 수요의 70%를, 그리고 온실가스의 80%를 생산하는 도시들의 친환경, 성장 지향적 성장방향을 논의

- 2) 식량안보의 확보 (Ensuring food security)

-지속가능한 식량 공급, 식량 안보제고를 위한 공공-민간간의 협력방안을 협의함.

-Urusula Schafere-Presuss, ADB 지식관리 지속개발 부총재; 지구상, 빈곤층의(1일 1.25\$이하) 해소 목표 노력을 설명, 2008년 FAO/ESCAP 보고서를 인용, 농업생산과 bio-fuel 생산관계를 설명, ADB RETA 보고언급(STERN 보고서 기초), 저탄소, 기후변화적응 사회 추진 (A low carbon climate resilient society)으로 농업상 적응방안을 모색, 2008년중 4000만불 예산을 동남아 지역에 투입

-Mudbhary 박사, FAO 지역 정책과장; 지역내 5억에서 8억의 식량부족 인구상존, 현재의 식량위기는 위험하지만 기회가 되기도 함, 쌀농사는 메탄을 양산해내기도 함, FAO는 식량안보와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지역내 대화를 촉진하고자 함.

-Sumeth Laomoraporn CP Intertrade 이사: 세계 쌀생산



2900만톤중 30%를 태국이 생산함 (베트남 5.2%, 미국 3.25%, 파키스탄 4%, 인도 2.3%, 중국1.30%등). 수입국에는 필리핀, 아프리카 제국등이 있음. 2008년 식량위기 때에는 태국을 제외한 모든나라가 쌀 금수조치를 내렸었음.

많은 나라가 보조금을 생산농민에게 지불하고 있음. 식량 위기의 해결책으로는 농민 40%에 해당하는 소규모 영농의 확대를 기해야 한다고 봄. 이를 위해 기술의 개발 공급, 세계적 차원의 안전 저장 네트워크(Worldwide Safety Stock network)가 설치돼야 한다고 봄. 수출에 금지조치가 내려지는 일은 없어야함. 농산물가격에 대한 투기적 행위는 진정되어야함. 농산물 수출, 수입업자 쌍방에 대한 형평성 있는 이익의 배분이 있어야 함. 일방 개인만의 이익은 어느 정도 희생될 수 있어야함

-Anthony Banbury WFP 아시아 국장: 2003년이래 산림의 황폐화등 농사가 점차 변경적 땅 (marginalized land)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우려되는 일임. 기후변화의 경감 및 적응면 사회적 보호 계획(Social protection scheme)이 필요함. 특히 수자원관리, 개울(stream)관리 등 물의 관리가 긴요함.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나무를 심고 탄소 크레딧을 받는 지속가능사업들이 촌락단위로 행해지고 있음.

-Johan Rockstrom 스톡홀름 환경연구소(SEI)대표:

과학계는 20여년전부터 현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해왔었음. 현재 적응능력(Adaptation capacity)의 제고가 긴요함. 물이 때에 따라 너무 많거나 너무 부족한것이 문제임. 식량 생산의 80%가 소규모 영농가에 의해 생산되고 있음. 이들이 기술혁명을 통해 혁신한다면 미개발될 잠재성이 큼. 새로운 형태의 비료개발, 보충적 관개시스템을 통해 지속가능생산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믿음. 기업의 관심제고가 필요함. 과학은 현재규모의 땅을 통해 앞으로 90억 인구를 부양할 식량을 생산해 낼 수 있어야함. 새로운 생산기반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민간기업과의 동반자관계가 필요함. 소규모 관개 (small scale irrigation)에 대한 대규모 실험이 필요함. 남아공에서는 호수·연못을 이용, 영농을 하는 시험이 진행되고 있음. 현재의 세계금융위기는 우리가 잘하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

- 기후변화와 재앙의 리스크 관리

- 기후변화가 가져올 환경재앙에 대한 대처, 환경체제의 악화대응, 경제적 손실요인, 보험부문의 대응 등 기업과 정부가 각각 할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

- 종합

- Noeleen Heyzer 에스캡 사무총장;

- 기업이 아시아지역의 환경재해 방지를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며, 기후변화위기에 대처하기위한 기업차원의 방안 모색을 위해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함.

- Anders Nordstrom SIDA 사무총장은 기차는 달리고 있으며, 이에 동참하지 않으면 기업은 사업의 기회를 놓칠 것이고 정치가는 국민의 표를 잃을것이라고 하며, 정보와 경험의 교류와 접근성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함. (SDIA는 금번회의제기에 “ Making Climate Your Business- Private Sector Adaptation in Southeast Asia 보고서를 소개함)

- 금번 회의 결과는 12월 코펜하겐 회의 앞으로도 반영될 것임



● 평가

-평소 동남아 지역 개발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스웨덴 정부가 기후변화 문제관련 이지역 차원 기업들의 대응을 돕기위해 에스캡과 공동으로 주최한 나름대로 의의있는 회의였음.

-아시아차원 기후변화대응문제를 다룬 이러한 포럼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파악하고 있어야 할것이라는 인식

-12월 기후변화 세계회의와 이에 앞서 5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대응 세계기업인 대화를 앞두고 우리나라 기업/정부의 입장을 수립하는데 소정의 참고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첨부: 관련 수집자료

끝